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2023. 5. 11. 목 오후 2:00

의성군 종합복지관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 주최_ 세움의성 (대표 광병구 목사,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_ CTS기독교TV(CTS 안동방송), 의성기독교연합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경중노회)



본 자료집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행사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발표자의 견해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프로그램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14:00 **1부 개회** 사회 장헌수 사무총장 (세움의성)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환영사] 박병구 대표 (세움의성)

[축사] 김주수 의성군수 (경상북도 의성군)

[축사] 이정우 목사 (CTS안동방송운영이사장, 안동서부교회)

비전영상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14:20 [토론①] 저출생 시대의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윤석열 정부 돌봄 정책 점검)
. 변창배 운영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14:40 [토론②]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15:00 [토론③] 저출생의 대안으로서 돌봄마을과 돌봄교회
. 이원돈 목사 (부천새롬교회)

15:20 [토론④] 지자체의 마을학교를 통한 돌봄정책(사례중심)
. 오덕은 목사 (탑리교회)

Q & A 토크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CONTENTS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1부 개회

사회 장헌수 목사 (의성 창길교회)

- 09 [개회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 11 [환영사] 광병구 대표 (세움의성)
- 13 [축사] 김주수 의성군수 (경상북도 의성군)
- 15 [축사] 김영미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 19 [토론①] 저출생 시대의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윤석열 정부 돌봄 정책 점검)
. 변창배 운영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29 [토론②]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 39 [토론③] 저출생의 대안으로서 돌봄마을과 돌봄교회
. 이원돈 목사 (부천새롬교회)
- 55 [토론④] 지자체의 마을학교를 통한 돌봄정책(사례중심)
. 오덕은 목사 (탑리교회)

Q & A 토크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01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개회사

계절의 여왕 5월에 의성에서 세움의성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의의 고장, 의성의 지역민 분들을 비롯해 오늘 포럼을 함께 개최하신 세움의성과 의성군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문제를 겪게 된 지도 벌써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인구절벽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소멸의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사라지고 통폐합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성의 지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랜 터전이자 고향 '의성'이 이처럼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방대한 평야를 가지고 있어 농업이 발달하였던 의성은 삼한시대 초기까지 조문국이라는 이름으로 존립하며 고서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후 고려초에 처음으로 의성이라는 이름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온 참으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의성이지만 지난 몇십년 동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그 수가 5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성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돌봄에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출생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돌봄 서비스의 미비 때문입니다. 맞벌이 시대에 돌봄의 부재는 치명타입니다. 아기를 돌보려면 24시간동안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맞벌이 가정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지역 내에 돌봄 서비스가 준비되어 일하면서도 충분히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역에 사는 부부들이라면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돌봄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구소멸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돌봄을 통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돌봄으로 어떻게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장, 권순용, 장종현, 김태영, 오정현



광병구 세움의성 대표

환영사

환영합니다. 세움의성 대표 광병구 목사입니다.

의성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출생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역 돌봄에 관심을 갖고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하신 저출생대책국민본부 감경철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주수 의성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변창배 운영위원장님, 안광현 교수님 이원돈목사님과 돌봄사례를 발표해주실 오덕은목사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의 위기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이때에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2023년 봄날에 3월 29일 저출산대책 세미나를 통해 저출생시대를 진단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현 정부의 아동돌봄 정책을 진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회포럼 또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11일에 경북 의성지역에서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행복한 출생으로 든든한 미래를 만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2023. 5. 9.

**김주수** 의성군수

축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출생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돌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병구 의성세움 대표님 및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여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도 출산은 어려운 선택이고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죄책감에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부부가 아이들 온전히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돌봄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며, 그간 돌봄의

경우 여성이 온전히 부담했다면, 이제는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 등이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이나 마을학교 개념의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한 돌봄 활성화 방안 등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돌봄 방향 제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영유아 아동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의성군 아동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공립 금성하나어린이집 신축과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의성형 아동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을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기회로 우리 의성군도 다양한 돌봄 현장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확충해 나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세움의성 및 저출생대책국민본부 관계자, 발제 및 토론 등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9.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국회포럼

축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사회 아동돌봄정책이 나가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정숙 의원님과 본 포럼을 주관해주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신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장기화, 고령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수 감소는 최근 원아 수 부족으로 어린이집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변경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 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아동돌봄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들이 기관을 쉽게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집 근처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양육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부모와 가정에 남게 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적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개인적인 가치관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양육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늘봄학교 추진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와 국회, 종교·시민단체 등 민간이 함께 ‘저출생시대 아동돌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의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논의의 장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토론 ①] **변창배** 운영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토론 ②]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토론 ③] **이원돈** 목사 (부천새롬교회)

[토론 ④] **오덕은** 목사 (탑리교회)

Q & A 토크쇼



02

[토론①]

저출생 시대의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윤석열 정부 돌봄 정책 점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변창배 운영위원장

- 現) CTS기독교TV 부사장
- 성균관대,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졸
- 호주 멜본신학대학교 박사학위 수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8차 총회 총대
- 세계선교협의회(CWM) 이사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 예정통합 기획국장, 사무총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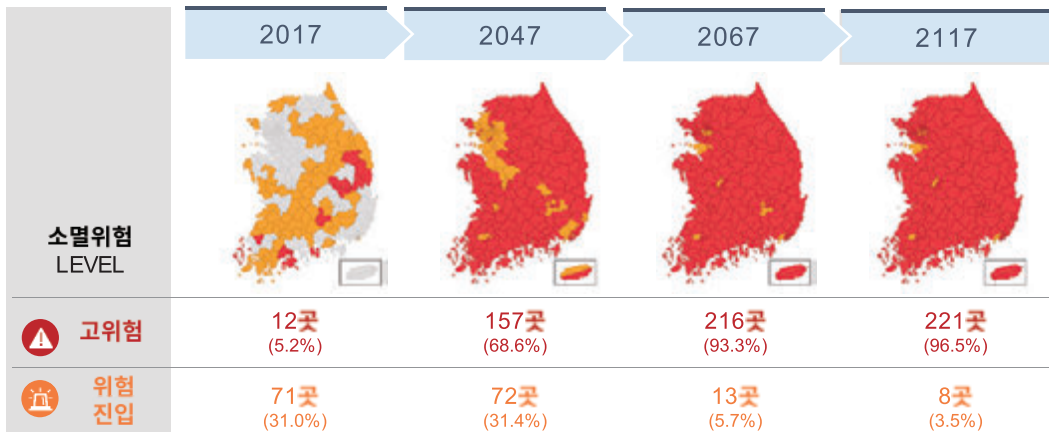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산 대책 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 내 0~3세 아동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교육’으로 저출생 극복해야

합계출생률 0.78은 “지역 소멸”을 초래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



* SOURCE :KBS(자료 감사함)

저출생 극복을 위한 CTS의 노력

2006. 1. 10.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21. 7. 4.
CTS다음세대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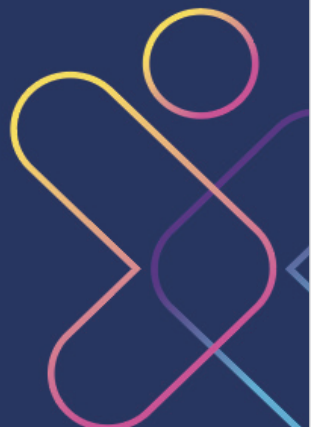


2010. 4. 12.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2022. 8. 24.



- 08.24 저출생대책국민운동 출범식
- 11.22 광주본부 출범식
- 11.30 경남본부 출범식
- 12.02 전북본부 출범식
- 12.04 부산본부 출범식
- 12.11 포항본부 출범식



0~3세 돌봄시설 확보의 시급성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돌봄’에 주목

» 심각한 저출생 위기



- 저출생은 교육, 직업,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복합적 문제
-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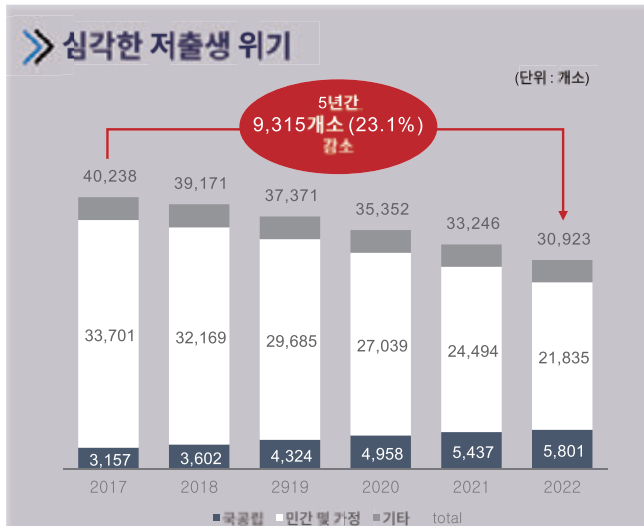
해답은
“돌봄”

특히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

0~3세 돌봄시설 확보의 시급성

이어지는 어린이집 폐원... 돌봄 공백 심화

» 심각한 저출생 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폐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있으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공백 대응 역부족

돌봄 공백지역
광범위하게 발생

돌봄사각지대발생과지역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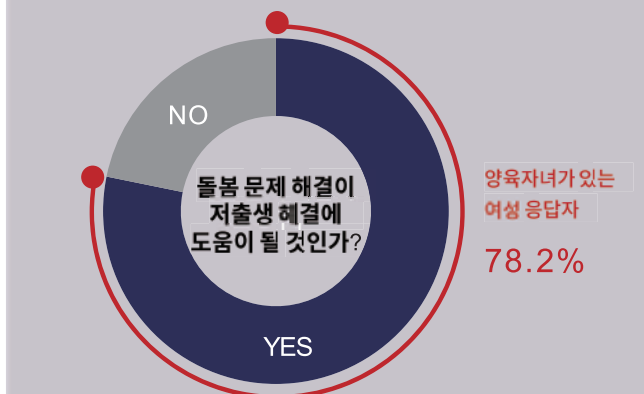
돌봄 시설 감소의 나비효과 ‘지역붕괴’



돌봄사각지대발생과지역붕괴

돌봄 시설 부족은 출산율 반등의 저해 요소

>>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은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 저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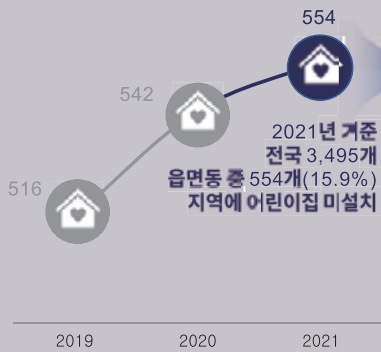
돌봄 서비스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

※ SOURCE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연구조사(2021.11.7. “2회의 돌봄사각지역에 관한 조사”, ㈜지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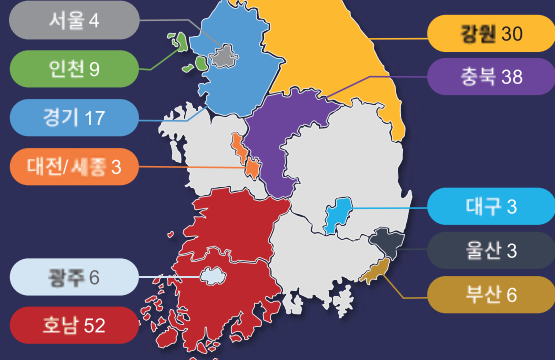
돌봄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돌봄 사각지대 ... 지역적 편차 심각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증가



>> 지역적 편차 심각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설치의 필요성

종교 유휴공간 이용한 돌봄 공백 보완

>>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 기준 돌봄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종교 유휴시설 10만 여개
단기간내 돌봄 공백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종교시설을이용한돌봄시설설치의필요성

종교시설 활용 시 고려할 사항



종교시설을이용한돌봄시설설치의필요성

종교시설 활용은 효과적 돌봄 시설 확충 대안

- 0~3세 돌봄으로 저출생 극복에 도움
- 과거 선례를 생각할 때, 발전적 결과 기대
 - 종교계 공부방, 선교원, 다기학교 등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사립학교 등으로 발전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이해관계자 노력 필요

사회적 합의 도출, 관련 법규 개선, 시설비 및 보조금 지원 등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설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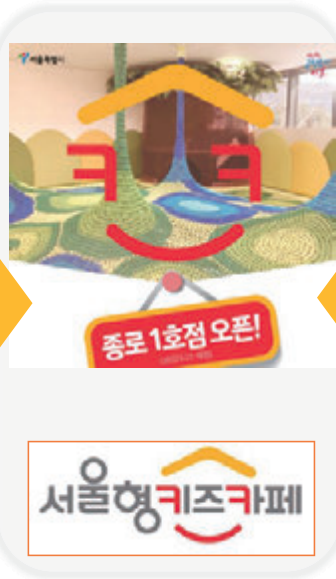
돌봄

긴급돌봄, 키즈카페 등을 통하여 돌봄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

- 공간제공
- 지역 섬김
- 親기독교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 종교교육 제외)

CTS 內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예정



서울시 자치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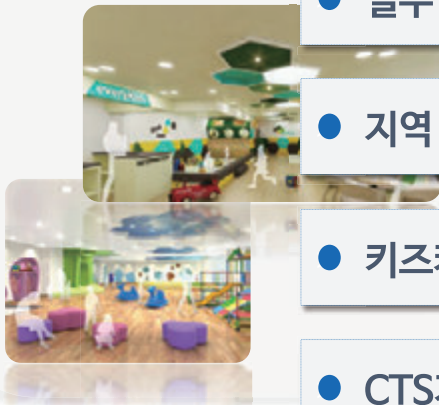
- 운영 규정 (조례 제정)
- 기관 선정 및 관리
- 재정 지원
- 시설비, 관리비
- 운영 책임 및 감독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시설 설치의 필요성

돌봄

긴급돌봄, 키즈카페 등을 통하여 돌봄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형 키즈카페



- 지역교회들이 주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을
- 지역 아동 +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 키즈카페(놀이 공간)를 운영할 수 있도록
- CTS가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을 제공

[토론②]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

- 지속가능연구원장
-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 송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 저출생대책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세미나 .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1. 시작하는 말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30대
미혼율?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비중?

• 2021년 기준

49.6%

50.4%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중
89곳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의성군 포함)



지방소멸의 의미?

• “늙고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

지방대학의 위기!

Why?

•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 소멸”



2. 저출생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1) 저출생의 원인

- | | |
|-------------|---------------------|
| 1. 높은 미혼률 | 2. 전쟁보다 더한 경쟁 |
| 3. 돌봄과 양육문제 | 4. 경제적 문제 |
| 5. 가치관의 변화 | 6.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 경력단절 |

2) 정부의 대응

- . 2022년 저출생 예산 59조 원.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다수
- . 보육 등 직접적인 지원책 '가족 분야' 예산 19조 원 불과
- . 중구난방 예산 정비,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3. 지역소멸 현황

1) 지역 인구 감소

- .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인구 감소**
경북(1만 6,500명), 부산(1만 3,600명), 경남(1만 3,400명), 전남(1만 3,000명) **감소**
- .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
출생아보다 사망자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
- .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한 시·군·구 60여 곳(26%)에 달함.

3. 지역소멸 현황

2) 지방대학소멸과 지역소멸

.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

2022년 87.6%,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8만4,578명
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 증대

.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

3. 지역소멸 현황

3)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 **어린이집 : 매년 1,900곳 사라짐**

2017년 4만238곳 어린이집 (2022년 8월 현재)

3만 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줄었음

3.1. 소멸위험지역

- 소멸위험지역 . 전체 시군구의 49.6% (113개, '22년)
- 소멸위험지수 . 0.2~0.5 미만 '소멸위험진입지역' 68곳,
- 소멸위험지수 . 0.2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45곳

3. 지역소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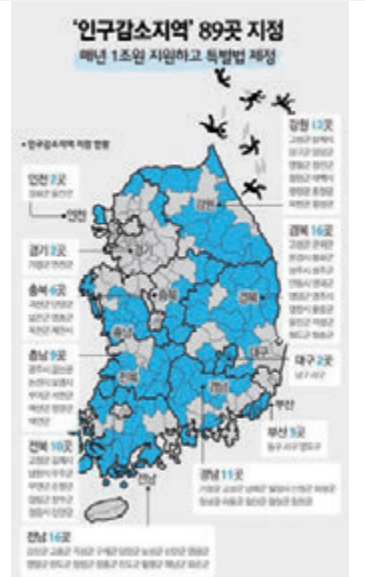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리스크 증가

-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 소멸위험지역 분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전체인구,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주요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 (2020년 7월 1일 기준)

지역	2020년	2022년 3월 말
전남 동진	0.50	0.39
경기 포천	0.50	0.44
강원 속초	0.54	0.47
전남 여수	0.56	0.46
전북 군산	0.58	0.49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4. 저출생 정책평가와 외국사례 비교

1) 저출생 정부정책의 문제점

- (1) 비효율적인 예산활용
- (2)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경제적 불확실성
- (3) 사회구조적 대응 미흡과 인식 변화의 한계

2) 외국의 대응 정책

-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2000년대에 들어 정비례로 바뀜.
-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하는 여성의 숫자와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함께 올라감.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저출생 정책방안

- (1)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2) 전문조직과 전문가 양성
- (3)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 (4) 저출생 기본정책의 내실화
- (5) 가족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 ①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화
 - ② 아동수당 지급대상 17세까지 확대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저출생 정책방안

- (6) 해외 정책의 도입
 - ① 프랑스 : 자녀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
 - ②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 정책 명시화
 - ③ 일본 : 일·양육의 兩立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중시
 - ④ 싱가포르 : 가족 지원과 일·가족 兩立 지원 추진
 - ⑤ 헝가리 :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2)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지방자치단체 돌봄정책

- .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 지역 간 인구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
- . 돌봄의 국가책임은 지역책임으로 구체화하면 효과가 더 클 것
- . 돌봄 시범도시 시행

(2) 지역의 균형발전 개혁

(3) 양육 지원 정책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구조 측면
- . 시설 공급 측면

(4) 지방소멸대응기금

(5) 출산장려운동과 종교단체 영유아돌봄 서비스

6.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 . 지역의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여성(결혼연령층)의 일자리 해결
- .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 확대할 걸림돌 해결
- .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관련 법규개선과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필요
- .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상생 위해 협력공동육아, 어린이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돌봄 실시**
- .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 필요**
- .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장려운동과 영유아돌봄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위기극복**

[토론③]

저출생의 대안으로서 돌봄마을과 돌봄교회



부천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 現) 새롬교회 담임목사
예장 총회 자립화 교육기획위원 역임 /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 사회 복지부 위원 역임 /
現)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마을목회 위원회 위원
- 부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역임 /
- 現)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 관장 /
- 부천 YMCA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역임 / 부천실업극복운동협의회 이사 역임

저출생의 대안으로서 돌봄마을과 돌봄교회

이 원 돈 목사 (부천 새롬교회)

1. 우리는 왜 저출생의 대안으로 돌봄교회와 마을을 생각하는가?



올해 통계청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을 전년도에 비해 0.03명이 줄어든 0.78로 발표하였다. 대개 선진국으로 진입기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출산율 1.5 정도를 유지하여 우리보다는 한참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①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수년 동안 수조원을 부어도 해결되지 않고 더 떨어진다. 이는 출산율이 양육비 지원 같은 돈으로 만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② 우선은 출산율 1.5로 출산율 0.78인 우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선진국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예컨대 단순히 출산하면 20만 원 양육비를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율은 단순 양육비 지원 같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가능케 하는 복지 시스템과 제도의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여성이 출산 육아가 가능하도록 복지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고, 북유럽처럼 임신 출산 휴가를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주고,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적극 쓰는 양육 시스템 확보해야 한다.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후에도 경력단절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사회적, 법적, 금전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애 낳을 상상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③ 세 번째는 조부모나 대가족을 대신할 지역과 마을 단위의 돌봄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돌봄 마을이 등장해야 한다. 400만 나홀로의 시대, 젊은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와 마을단위에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주거 의료 복지 등 출산 양육 생태계를 만들어 출산과 양육의 용기와 상상력이 가능하도록 마을 단위의 돌봄 마을 생태계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우리 마을 교회들은 돌봄 마을을 형성해 나가는 한 주체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명 잉태와 생명 출산의 용기와 같은 돌봄 마을의 영적 생태계를 돌봄 교회가 감당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사회적 품(자궁)을 형성하는 이 일이야말로 생명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 잉태와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명을 돌보고 풍성하게 하는 돌봄 마을과 돌봄 교회야말로 마을 단위에서 교회와 마을이 생명의 품과 자궁을 형성함으로 코로나 이후 생명과 돌봄이 풍성한 교회와 마을이 됨으로써 저출생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고, 이렇게 교회와 마을이 생명이 풍성한 사회적 품(자궁)이 될 때에만 오늘 이 시대의 청춘들이 생명 잉태와 생명 출산의 용기를 갖게 되어 동네와 마을마다 다시 아기들의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가장 구체적인 저출생의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출생 시대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우리 사회와 교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87년 진정성의 시대와
97년 생존주의 시대!**

**탈성장시대 우리는 청년들을
'사회 피로증', '공동체 기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와 교회의 흐름은, 고도 성장기가 저물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가 서로 맞물리며, 수축화와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저성장 수축사회의 방향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 사회가 치열한 경쟁과 심화되는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낸 결과, 청년들은 '가족 피로증', '가족 기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결혼 기피와 저출산, 3포 5포로 연결되며 헬조선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구조적 모순이 바로 저출산을 가져오고 있는바, 이 저출산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도무지 구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희망과 가능성과 활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선 교회학교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러한 교회학교의 붕괴는 청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20~30대의 결혼과 출산율 저하를 야기하였으며, 한국교회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짐을 가족에게 지우는 선 성장주의적 산업화 시대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협동 연대하며 돌봄 생명망을 짜는 생명 생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성찰하면서, 저출산 시대의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의 사회적 돌봄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한번 성찰하지 않을수 없다.

이른바 산업 근대화의 과정은 바로 품을 없애는 과정이었다. 산업혁명은 대가족제도를 붕괴시켜 핵가족으로 변모시켰다. 핵가족은 대가족에서 해방되어 인간 개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집(HOUSE)은 있지만 가정(HOME)이 없는 품이 없는 자유이었다. 남 녀 자녀 모두가 생산 현장에 나서야 했고, 모두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 사람만 있지 돌봄사람 존재하지 않는 동거인들의 하숙집과 같은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 도래 한 것이다. 가정은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을 쉬는 장소로 찾아드나 쉴수 있는 품이 없는 까닭에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쉬려는 사람뿐이고 쉴수 있는 품을 제공하는 성원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¹⁾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교회교육 - 품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품은 본래 한 사람의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보다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하면서 가정의 품, 교회의 품, 학교의 품으로 확장시키면서 주일학교로 자폐된 기독교 교육의 영역을 기독교 교육 시민운동까지를 포함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로서 품 모델을 그림으로 제안하면서,이 품이 마을의 품으로서의 돌봄 마을의 가능성을 상상케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교육의 품 모델이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듯이 저출생시대에 마을과 교회가 연결된 지역사회의 품이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품(자궁)이 될수 있다는 생명적 상상력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²⁾

1) 안병무.“살림.품” 살림 48호, 한국신학연구소.1992년 11월호 2.13p

2) 박상진 “기독교교육생태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교회교육 - 품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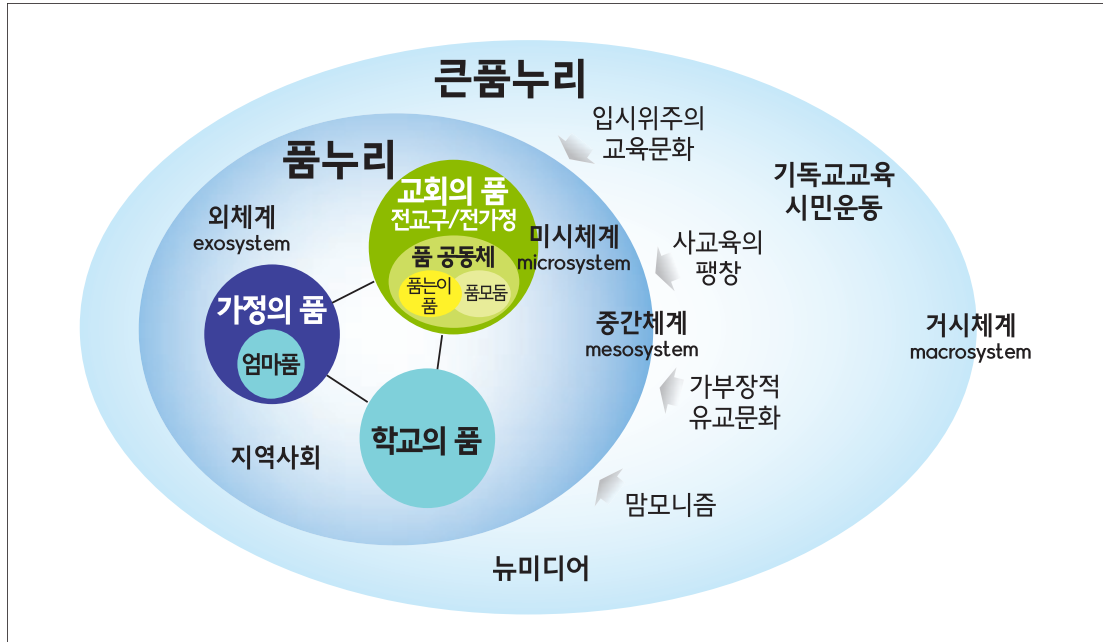


그림 1. 기독교교육생태계로서 품 모델
 Figure 1. Eco.system of Christian education: Pum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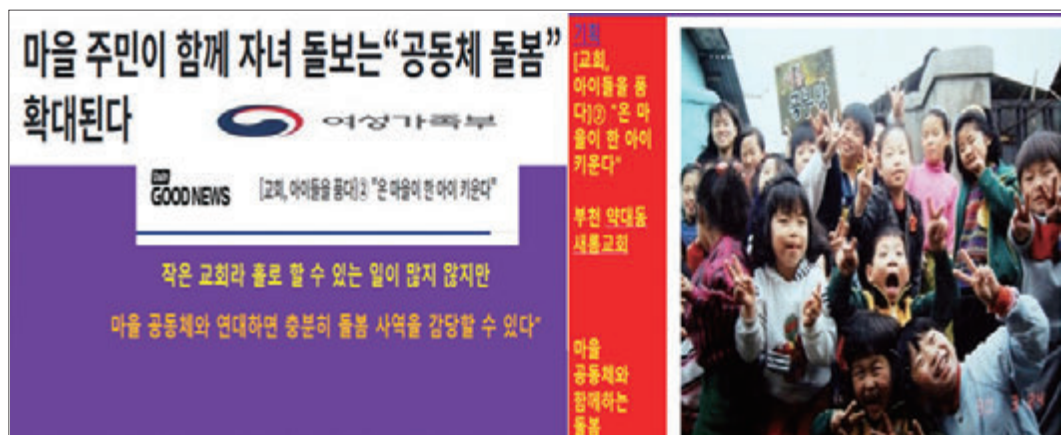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주의적 각자도생의 생태계에서는 이 생명의 품(자궁)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며 그동안의 한국 사회의 대세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품(자궁)의 붕괴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동안 산업화 시대의 속도와 성장과 경쟁의 세계관에 매여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속도와 경쟁과 성장의 세계관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세상을 가져왔다. 3) 그런데 이러한 경쟁과 독식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개인에게 짐을 지우고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불안 증폭/피곤/허기의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희망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위축 절망하고 상상력을 잃고 영끌과 빚투등 각자도생의 경쟁적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을 잉태 출산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품 즉 사회적 자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0.78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마을과 돌봄교회라는

새로운 마을 생태계와 공동체적인 품과 사회적 자궁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적 상상력과 희망으로서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을 제안 하려는 것이다.

4. 코로나 재난기에 생각해 본 생명을 품는 사회적 품(자궁)으로서의 돌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재난기에 아이와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돌봄이 울스톱되고, 시민의 삶이 울스톱되면서, 돌봄이 어떠한 산업노동이나 임금노동, 생산 노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봄은 가족, 지역, 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오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돌봄 마을과 돌봄공동체로서의 상상력을 높이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적 출산과 사회적 양육의 상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와 마을이 힘을 합하여 이러한 공동체적 출산과 사회적 양육의 생태계와 품(자궁)을 마련할 때, 우리 교회와 마을에 다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국의 저출산위기도 돌봄을 시장에 맡기려는 돌봄 위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돌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회 전체의 자원 중 상당 부분을 시장의 논리와 지배에서 떼어내 기후 재앙에

맞선 돌봄활동 영역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코비드.19 팬데믹기간에 그랬듯이, 상시적 재난 대응이라는 명령이 이윤 동기보다 위에 놓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돌봄 선교의 새로운 출구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마을이 서로 돌보는 돌봄의 연대체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 다행이도 최근 한국교회에는 지역선교와 마을목회에 관한 관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중으로, 이러한 지역과 마을 선교를 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어린이집과 마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 복지적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을의 돌봄 생태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의 탁아소와 지역아동센터를 공동 탁아 같은 마을의 돌봄적 상상력을 펼쳐 나가, 마을과 교회 전체가 출산부터 육아 그리고 방과 후 탁아까지를 함께 책임지는 돌봄마을의 생태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이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커뮤니티 케어', 즉 마을공동체 돌봄 치유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마을을 왕진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마을공동체 단위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준비하는 돌봄마을 공동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5. 저출생의 근본 대안으로 지역과 마을 곳곳에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이라는 생명의 품(자궁)을 형성하여 생명잉태와 출산의 상상력을 높이자!

예수님은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인류를 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품(생명을 품는 자궁)을 제공한 복음이요 사랑 그 자체 이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수난받는 자 세상이 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몸(품)을 내어주는 돌봄으로서 새 생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잉태 출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 주셨다. 그후 바울 신학에서 “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초대교회 공동체 신학의 핵심도 바로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예수그리스도의 품(자궁)을 제공할 때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됨을 결정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다.³⁾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품을 만들어 생명을 품고 잉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저출생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체의 품으로 세상을 품어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대가족제도가 이 생명의 품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는

3) 안병무.“살림.품” 살림 48호. 한국신학연구소.1992년 11월호 2.13p 안병무.“살림.품” 살림 48호. 한국신학연구소.1992년 11월호 2.13p

이러한 대가족과 같은 생명을 품을 만들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여성들도 현재 산업화 사회에 생산의 현장에 투입되어 있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 사람이니 쉴자리를 제공하는 돌봄의 성원이 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 산업물질문명에서는 물질 생산에 남녀 모두를 과도하게 동원하고 있기에 생명 돌봄의 생태계가 붕괴되어 지금 저출산이라는 생명붕괴의 사회붕괴 가족 해체의 상황이 도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저출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이나 한 가정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기초한 생명의 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0.75라는 한국 사회의 최저 출산율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의 care는 “보살핌, 관심, 걱정, 슬픔, 애통, 곤경”을 의미한다.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존의 근본 요구로 이를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 재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회와 교회와 마을이 이 돌봄을 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미루지 않고 사회 전체가 이 돌봄 시대적 욕구를 사회와 공동체 전체로 이를 떠안을 때만 지구와 우리 교회와 마을과 도시를 생명 공동체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⁴⁾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역과 마을 단위로 여성과 개 가정을 넘은 마을에 기초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일종의 사회적 자궁이 필요하다.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4)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모순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 '돌봄' (프레스리안.2022년12월16)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생명을 잉태하고 품을 지역과 마을 단위의 사회적 자궁이 필요하고 그 사회적 자궁이 바로 돌봄마을과 돌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출생 시대의 생명돌봄마을이라는 상상력을 이렇게 요약해 본다.

“지금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생명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서 생명을 품는 돌봄마을이 되고, 여기에 교회가 돌봄 교회가 되어 이러한 돌봄마을에 적극 참여하면서, 마을 전체를 돌봄의 생명망으로 짜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생명 창조의 상상력을 높일 때이다”

결론 : 저출산 시대의 생명 잉태 출산 양육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봄마을과 돌봄 교회를 어떻게 출발할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산아래 현 한국 사회에 긴급한 생명과 돌봄의 위기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대표적 교단중에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10년”(2022.2032)의 출발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할수 있는 생명과 돌봄의 순례의 그 출발점을 제안하고자 한다.⁵⁾

5)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꽃피우는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 10년(2022.2032)에 대해서는 박성원 교수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장기발전 10년(2022~2032) 제안서를 참조하라.



1.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 등 재난 상황에 대해 생명 문명적 대처가 절실하다.
2. 오늘 이 시대의 청년과 중년 들은 영끌 부동산 투기와 빚투 주식 투자에 몰입하다가 부동산이 폭락하며 길을 잃어 버리고 있다. 이제 최후의 공유지인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자 우리안의 각자도생이라는 고립과 동굴들이 창궐하며 방안 숨은 히끼코모리 청년이 서울에만 20만(금융기관 3곳 이상서 돈 빌린 청년 139만명이 있다는 생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지금 매일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
3. 지금 한국 사회의 부동산과 아파트와 주식이 가족과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 공동체가 붕괴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홀로 세대도 400만이라 하는 이 생명돌봄의 위기의 시대에 총회적으로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10년”의 시작점인 지금의 시점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시급히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을교회의 생태계로 전환을 위해 한국교회의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역과 마을의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교회를 세우고 생명망 목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교회와 마을을 함께 살리기 위해 교회를 넘어 지역과 마을과 시민사회로 흩어지는 온 생명 돌봄마을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지역을 살리는 생명돌봄 교회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역의 학습 문화 돌봄 생태계를 생명의 돌봄망으로 잇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교회 안의 신앙적 생태계와 교회 밖 마을 생태계를 지역 돌봄심방의 개념으로 묶어 교인들만 심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을 심방하여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마을 생명돌봄 목회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세번째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방향성의 중심은 교회가 더 이상 산업물질문명의 고도성장시대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관계의 풍요, 돌봄의 풍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위해 마을 교회들은 각자도생의 사유지가 아니라 마을의 마당(공유지)와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한번 요약하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마을공동체 단위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준비하는 돌봄마을 공동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때에⁶⁾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의 돌봄 캠프가 되어, 마을을 심방하는 생태적·건강적·문화적·영적 돌봄 공동체(커뮤니티 센터)로 변화할 때 인 것이다.⁷⁾



6)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이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커뮤니티 케어', 즉 마을 공동체 돌봄 치유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마을을 왕진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7) 또한 우리 마을 교회들이 나가야 할 새로운 마을 목회의 방향은 새로운 방향은 산업물질문명을 넘어서는 생명 생태문명의 방향이다. 지금 전 지구적 생명위기는 우리로 이를 극복할 복음 선포의 사명감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한 국을 물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번성하라고 하신 생명공동체·생명문명의 출발점으로 마을 목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돌봄교회의 새로운 방향은 교회와 지역사회와 마을이 서로 돌보는 돌봄의 연대체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마을 목회는 돌봄 마을을 향해 가고 있다. 본격적 마을 목회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사회적 경제(주거 의료 음식 에너지의 마을 순환경제)와 마을의 목회적 돌봄 영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마을 단위의 연구소와 훈련센터가 필요하고 각 노회와 도시와 마을단위로 평신도와 시민 청년 신중년 평신도용 돌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⁸⁾

마지막으로 이러한 돌봄마을을 위해 마을단위로 어르신과 청년을 포괄하는 3.5가구의 돌봄 주거 공동체와 생명 돌봄 마을 공동체와 목회가 긴급히 요청됨을 알린다. 가족과 마을이 급속히 해체 되는 이시기에 어르신 청년 포함한 돌봄마을 공동주거의 서로 돌봄을 통해 돌봄마을과 돌봄 교회가 서로 주거 의료 음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 생명 돌봄 마을부흥과 생명 돌봄 선교사가 탄생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저출생의 시대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를 넘어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시대를 요청하고 있다. 저출생의 근본 대안으로 지역과 마을 곳곳에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이라는 생명의 품” (사회적 자궁)을 형성하여 생명 잉태와 출산과 양육의 상상력을 높일 때인 것이다.

8) 예를 들면 부천지역의 약대동을 중심으로는 돌봄 마을과 돌봄 공동체(주거)에 관하여, 선한 목자 교회를 중심으로하는 청개구리 청소년 사역에서는 마을 목회를 위한 디아코니아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관하여 (세이비어즈 교회 훈련구조를 참고하여) 마을 돌봄 영성을 준비하고 있고, 부천노회 마을목회 연구소가 준비중에 있다.

[토론④]

지자체의 마을학교을 통한 돌봄정책(사례중심)



탐리교회

오덕은 목사

- 탐리교회 담임목사
- 금성마을학교 플래너(마을교육 활동가)
- 포도나무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 의성군기독교연합회 총무
- 대구신학대학교 졸업 (신학과)
- 총신신학대학원 졸업 (신학과)
- 계명대학교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과)
- 중부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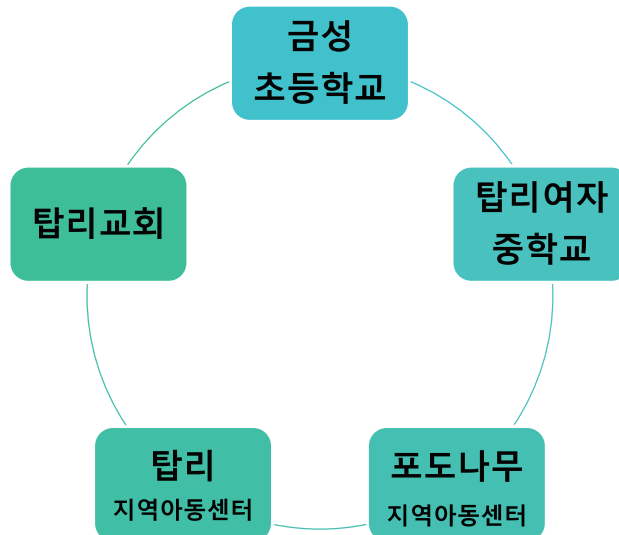
2022 금성마을학교 운영 사례 발표



금성마을학교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 내 학생들을 지역주민과 교육주체, 돌봄 주체들이 연계하여 돌봄과 체험을 통해 배움을 확장해 나가게 한다.
2. 부모와 자녀,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세대통합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과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3.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아동이 우리 고장에 대하여 관찰하고 소통하여 마을의 소중함을 배우게 한다.

금성마을학교 연계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K-POP 방송댄스
활동목적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의 기초체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음악을 듣고 신체표현을 함으로서 창의력과 균형적인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자 함
활동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연성 향상 및 자신감을 향상 할 수 있다. 2. 자기 소질개발 및 기초체력과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다. 3. 단체 활동을 통하여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성을 키워 준다.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우리 마을 공예교실
활동 목적	다양한 공예 기법을 익히고 창의적 경험을 통해 즐거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풍부한 상상과 표현력을 가지게 한다. 2. 다양한 공예활동을 통하여 자신만의 미적감각을 길러준다. 3. 완성도를 통하여 인내심을 길러준다. 4. 공예 활동을 통해 손에 협응력을 기르고 미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5. 합동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 줄 수 있다.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 보드게임
활동 목적	소규모 집단 활동을 통해 상담자와 신뢰를 쌓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이해와 자기 수용 및 자기 개방을 촉진하고자 함 인성함양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게 한다.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원 상호작용 및 집단 역동 속에서 자신의 이해와 효율적인 자기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다. 2.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대화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자연스러운 상담을 한다.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우리 마을 악기 놀이터 (칼림바)
활동 목적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소리가 은은하고 청아한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칼림바를 배우고 연주함으로써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손과 눈의 협응력, 집중력 사고력, 리더적 역량과 자신감, 자기주도적 긍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다.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칼림바의 유래, 구조와 관리 및 조율을 배우고 다양한 연주법을 배울 수 있다. 2. 칼림바 악기로 가족 모임, 버스킹, 마을축제 때 연주를 할 수 있다. 3. 음악이 주는 다양한 감성을 배운다. 4. 연주를 통해 의사 소통력, 협동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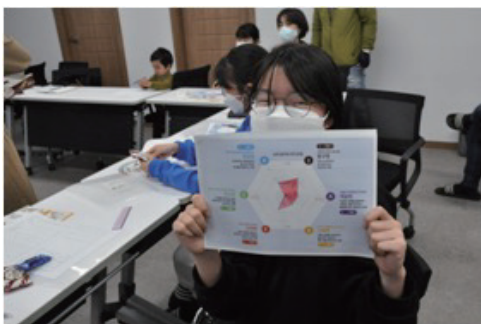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세계의 요리
활동 목적	다양한 세계의 요리를 경험하고 식생활 문화를 배운다.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소속감을 갖게 한다.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 2.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마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금성마을학교의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의성 ON 토론교실
활동 목적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토론 경험 제고 하브루타식 대화법을 통한 협력적 사고 활동 강화 경청과 공감에 기반한 의사소통 학습을 통한 상호 존중하는 대화 습관 형성
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게 한다. 2. 배려와 경청에 기반한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쌓게 한다. 3. 토론하는 문화, 수업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음 4.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상호 의사소통하는 협력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

프로그램 진행 모습 (내 꿈을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 모습 (마을학교 개강식)



프로그램 진행 모습 (마을학교 봄 소풍)



프로그램 진행 모습 (K-POP 댄스)



프로그램 진행 모습 (칼림바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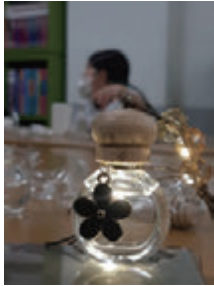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 모습 (집단상담 - 보드게임)



프로그램 진행 모습 (가을음악회 - 칼림바 연주회)



프로그램 진행 모습 (우리 마을 공예교실)



프로그램 진행 모습 (세계의 요리)





프로그램 진행 모습 (의성 ON 토론교실)



프로그램 진행 모습 (썸머 스쿨)



프로그램 진행 모습 (금성면 마을축제)



프로그램 진행 모습 (종강 파티)



2023년 마을학교 진행 프로그램

1. 다다다 뮤직 밴드
- 지역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
2. 우리마을 생활체육
- 탐리여자중학교 연계 프로그램
3. 우리동네 공동부엌
- 탐리교회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 모습 (다다다 뮤직 밴드)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발행일 2023년 5월 11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www.happyborn.kr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돌봄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는 저자들의 개인 의견을 서술한 것이므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